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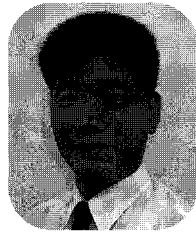
1월 지육시세는 2,400원/kg 예상

- 1월 설날 연휴로 소비 증가추세
- 돼지부분육의 소비 편중형태 개선책 필요

2003년은 2002년 8월부터 시작된 산지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한 한 해였다. 지금의 추세대로 돈가가 유지되면 2003년 서울 비육돈 지육 평균단가는 2,395원대를 기록하여 최근 10년내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돈가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돼지고기 부분육의 소비 편중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돼지 1두 도살시 삼겹살은 전체 정육의 18% 내외인데 반하여 산지 돼지가격이 오를 경우 육가공업체는 돼지 구매시 인상된 돼지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더 받을 수 있는 부위는 삼겹살 밖에 없기 때문에 삼겹살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수입 삼겹살이 들어와 삼겹살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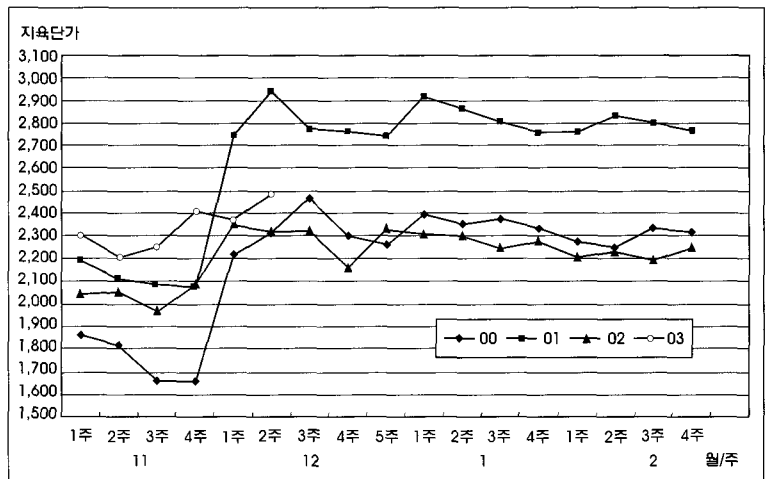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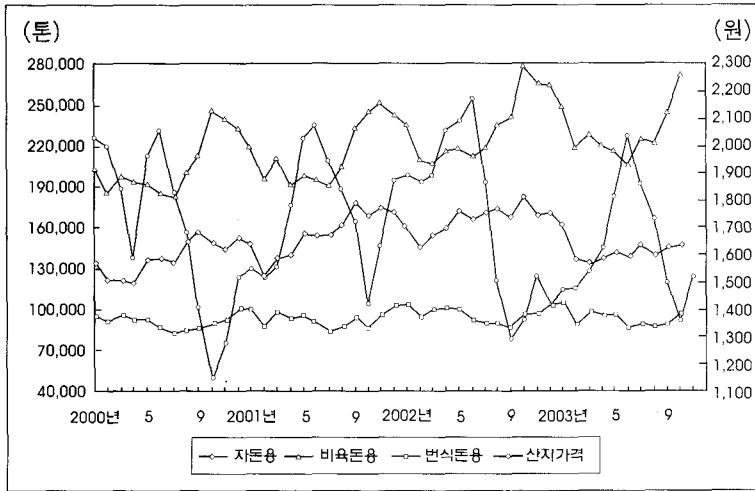
돼지가격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낮은 돈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혁파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 편중형태를 개선하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국 후지가격이 kg당 1,100원으로 국제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시장구조로는 세계화된 육류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어렵고 점점 더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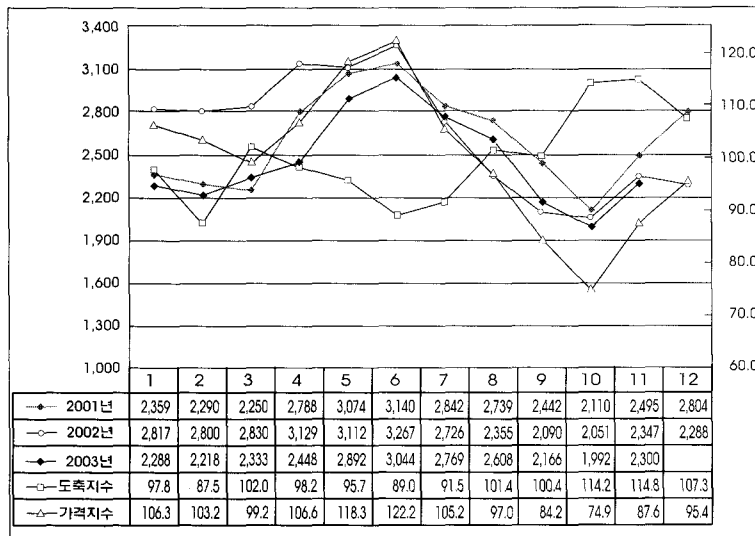
〈그림1〉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2003년 12월 돼지고기 시장은 출하물량의 감소와 연말연시 돼지고기 소비 증가가 겹쳐 나타나면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2,45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금년 8월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연말에는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농장운영비가 연중 가장 많이 필요한 달이기도 하여 돼지가격의 상승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낮은 가격이다.

2003년 11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138,238두로서 2003년 10월의 151,941두보다 약 9% 감소하여 돼지 출하두수의 감소가 돼지 가격의 상승에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10월까지의 사료생산량 추세를 보면 금년의 특징은 전년 대비하여 자돈 사료의 15% 내외 감소와 비육돈 사료의 2% 증가, 그리고 자돈과 비육돈 사료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번식 모돈의 사료는 2% 감소하여 돼지 비육돈의 성장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 수 있다. 번식돈 사료의 감소 폭이 작아 번식 모돈의 수가 약간 줄어들어 2004년도 비육돈 출하두수는 2003년보다 약간 감소하고 경제성장율이 금년보다 좋아지면서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금년보다는 상승하여 2,550원을 전후로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10월 사료 생산량은 전월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년의 추세와 비슷하여 2004년 1월에도 출하물량은 2003년 12월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소비측면에서는 1월 설날이 들어 있어 12월 소비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4년 1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단가는 2,4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 같다. **양돈**